

## 綜合博物館의 新設과 나

黃 元 九  
(延世大 博物館長)

### I

내가 延世大學校 博物館長職을 맡은 지 두 해가 넘었다. 이제 와서 변명할 필요는 없지만 이 자리를 맡아달라는 요청이 있을 때 몇 번이고 사양했었다.

그것은 첫째, 삼년 반 후인 1985년 5월에 맞이할 연세대학교 창립 100주년 기념식까지 先史, 歷史, 民俗, 美術, 地質, 動植物, 醫藥, 典籍과 資料, 延世大學校史와 비디오 教育에 걸치는 綜合博物館을 꾸민다는 것이 힘에 겹다기보다도 불가능할 것 같았고, 둘째 당시로서는 나의 전공과 상당한 거리에 있는 직책이었으며, 세계 이 일을 맡으면 자연히 내가 하고 있는 연구에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성격을 잘 아는 나로서 인간적인 관계에 좋지 않은 결과를 올 것이 뻔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세대학교의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계획된 이 綜合博物館의 거대한 사업에 내가 꼭 필요할 뿐더러 학교발전을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봉사하여 달라는 요청에 맡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 학교 출신인 나로서 이 학교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이고 보면 기피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맡고 말았다.

### II

그런데 일단 이 자리를 맡았으면 이 일을 완수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이에 취임하자마자 내 나름의 계획과 단계적인 조치가 불가피했다. 물론 중태에도 박물관은 있었다. 해방전 延禧專門學校시절에는 博物室이 있었고 해방후의 延禧大學校 때에도 이 박물관을 도서관장이 겸임하였으나, 6.25동란 때 문자그대로의 博物이 그나마도 파괴되거나 유실되어 1964년 박물관이 재출발되었을 때는 여기 저기에서 주워 모은 것이 고작이었다. 더우기 재출발한 박물관도 先史시대를 연구·개발하는 특수박물관으로 계속되어 온 탓으로 장차 구상되는 綜合博物館을 위해서는 어렵도 없는 수장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과 단계적인 수집이 있어야만 했다.

누구나 말하기를, 종합박물관을 꾸미기에는 이미 늦었다고 했다. 유물이 귀해지고 그 값이 뛰여 올랐을 뿐만 아니라 단시일에 큰 규모의 시설을 이루기가 어렵게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미 늦었다고 말만 하고 그나마도 착수하지 않으면 더욱 늦을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이 나의 단용에 가까운 의욕이었다.

그래서 학교의 여러 기관에 이미 수장되어 있는 것과 증부되지 않은 것을 증점적으로 수집하

기 시작했다. 그것도 단계적이고 기획적인 수집이었다. 반년 동안 수집·정리한 후 이를 전시하고 그대로 포장하여 장차 신축·개관되는 전시설에 옮겨 전시하는 방법을 계속해 나가면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애초의 구상이었다.

여기에서 박물관을 말자마자 우선 반년 동안 土器를 모아서 이를 정리하여 제 1차 企劃展示인 「한국의 토기」를 공개했고(1982.5~7), 이어서 磁器를 수집하여 제 2차 기획전시인 「한국의 자기」를 전시했으며(1982.9~11), 종래의 수장품인 瓦塼類에 대폭 사들인 기와를 합쳐서 제 3차 기획전시인 「한국의 기와」를 가졌다(1983.5~7). 그리고 지질학과에서 가지고 있는 地質標本을 정리하여 제 4차 기획인 「한국의 지질」 전시를 갖게 되었다.

이렇게 두 해를 지내는 동안 民俗 관계의 유물도 수집하되 특히 工具類의 수집에 치중하는 한편 토기·자기·기와를 더욱 보충하면서 美術品을 수집하기도 했다. 美術 관계에서는 古書畫도 단계적으로 수집하지만 그 값이 비싸기 때문에 우선 현대작가에게 부탁하여 西洋畫·東洋畫·덧상·水彩畫·書藝·篆刻·彫刻·織造에 이르는 60여 점의 좋은 작품들을 협조방기에 이르렀다. 모두 각 방면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들이다. 아울러 비디오교육을 위한 자료수집까지를 진행중에 있다.

나는 이 자리를 맡기 이전에도 古美術에 관심이 많았다. 어릴 때부터 주위에서 많이 보아 왔을 뿐만 아니라, 어쩐지 이 방면에 관심이 많아서, 국내에서는 물론 외국에서도 박물관·미술관과 각종의 전람회를 순시하는 일이 내 취미의 하나로 되어 왔다. 이에 나로서는 어느 정도의 審美眼과 鑑識眼이 있다고 자부하여 왔지만, 막상 박물관을 책임맡고 보니 그때부터 장님이 되는 듯했다. 무엇이건 감정에 자신이 없었다. 책임이 뒤따라서 그랬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방면에 경험이 많으신 분으로서 나를 도와주실 분을 찾게 되었다. 여기에 秦弘燮박사를 위시하여 黃壽永·金元龍·鄭良謨·韓炳三·鄭永鎬님 등이 고맙게도 기꺼이 협조하여 주셨다. 어느 때는 엄치없을 정도로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

었다.

이른바 骨董이라고도 하는 고미술품은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흥정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 값이 모호할 때가 많다. 같은 종류의 자기라도 辰砂의 점이 몇 개 있고 혹은 鐵砂의 줄무늬가 하나만 있어도 그 값이 두서너 배나 비싸고 보면 나로서는 값을 정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어떤 시세라는 것이 있거 마련이지만 여간해서 구경하기조차 어려운 유물이면 시세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이고 보면 더욱 난처하다. 그럴 때마다 자문하여 주시는 분에게 감정과 그 값어치를 여쭙어 보고 이전에 수집한 유물값과 비교하여 보기도 한다. 그러면서 값이 비싸지만 구하기 어려운 유물이면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박물관장의 직책이 터무니없는 구설수에 오르기 쉬운 자리임을 익히 알고 있는 나로서 취임과 동시에 몇 가지 원칙을 세워서 밀고 나가고 있다. 첫째 公私를 분명히 하되 사사로운 일보다도 공적인 일을 앞세우고, 둘째 유물구입은 관장실이 아닌 사무실에서 여러 館員들과 함께 공개적으로 결정하며, 세째 아무리 값싼 하찮은 유물이라도 관장이 개인적으로 구입하지 않음과 동시에 남에게 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박물관 館員들에게, 박물관은 은행보다도 더 정확하고 조심해야 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입버릇처럼 당부하고 있다. 은행에서 현금 사고가 나면 현찰로 보상할 수 있지만 유물이 손상되면 다시 그대로 복원될 수 없고 망실하면 똑같은 것을 대치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文化遺産에 대한 죄악을 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박물관에서는 서로가 믿고 일해야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세밀할 정도로 확인 행정이 필수적이다. 유물 창고에 혼자만의 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것도 못 믿어서라기보다도 은행 금고출입 이상으로 통제받는 구역이라는 경고를 상기시키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또 나는 古美術商을 늘 손님으로 대했지, 장사꾼으로 대해 본 일이 별로 없다. 유물 대금도 빠른 시일 안에 지불하는 것이 나의 運營方針이다. 되도록이면 외상을 하지 않는 일도 내 성격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만약 거래하는 상대가 나를 속이려들거나 나의 대인관계를 악이용하려

고 하면 다시는 상대하지 않는 것도 내 성격의 한 면이다. 따라서 자연히 믿는 상대끼리 거래 되는 일이 많아졌다. 그러나 언제나 방심하지는 않고 있다.

### III

대학은 문화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육성·발 전시키는 곳이다. 이에 박물관은 대학원, 도서관과 같이 그 대학을 상징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어떤 대학에서는 박물관을 종합대학교의 설치기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두는 기관으로 여기는 곳이 있다. 관심을 둔다고 하여도 학교의 자산을 늘리는 타산적인 기관으로 여기는 대학도 있다고 한다. 물론 대학박물관은 국립박물관 내지 사설박물관과 달리 대학교육의 측면적인 기관으로서만 설치의 의의가 있다.

그리고 연구와 전시가 계속되어야 한다. 이에 다양 각종의 다양한 유물이 비교 전시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소수의 값진 유물보다도 연구와 교육을 위해서 수장품의 종류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대학박물관의 소장유물은 한 기관만의 독점물이 아니라 公益性을 가진 문화 재임을 감안하여 이를 공개해서 연구에 널리 공여할 줄 아는 박물관이 되어야 한다.

나는 연세대학교 박물관을 장차 「보고 느껴서 창조하는 박물관」으로 꾸미고 육성시키고자 한다. 현재 건축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종합박물관은, 모두 3,800 평 규모의 연세대학교 100주년 기념건물의 대부분을 사용하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 박물관이 완성되고 1,000 평이 넘는 전시실에 전시가 완료될 1985년 5월에는, 3년 반이런 짧은 기간에 꾸며졌기 때문에 될 수 없었으니, 그동안의 예산이 보물급 靑磁梅瓶 한 점 값도 안 되는 예산이었기 때문에 이를 수 없었으니 하는 변명 따위는 허용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무조건 성취시켜야만 되는 시한부 작업인 셈이다.

이에, 요사이 나는 마치 경마장에서 경주하는 말처럼 주위에 눈 돌릴 겨를 없이 뛰고 있다. 오직 초콜릿 잃어 가는 기분으로 앞으로 매진하고 있다. 그리고 당장은 박물관의 큰 구실의 하나인 연구를 잠시 보류한 채, 장차의 전시실 열두 방을 구색 맞추어서 꾸미는 일에만 골몰하고 있다. 아울러 명년에는 아직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역사전시실의 유물수집에 착수하면서 제 5차, 제 6차의 약속된 기획전시도 가져야 한다. 내 머리 속에는 이런 일, 저런 일로 꽉 차 있다. 내 수첩도 여러 가지 일정과 계획표로 빈칸이 없다.

‘十人十義’라는 墨子の 말이 있다. 사람이면 제각기 생각이 다르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大學人이면 그 나름대로의 상식이라는 것이 있다. 따라서 무모할 정도로 밀고나가는 내 계획과 어떤 성과들이 대학의 상식에서 어떻게 평가될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지만, 일단 말았으면 끝장을 보자는 것이 나의 확고한 소신이다.

주위에서는 나를 원칙론자라고 하고 혹은 몰인정한 사람이라고도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과연 내가 그러한 사람인가를 되돌아본다. 그러나 나는 원칙론자라는 데에는 수긍될 수 있는 바가 있지만 결코 몰인정하지는 않은데 어찌서 그러한 사람이라는 오해를 받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이 자리에 오면서 어쩔 수 없이 척결한 몇 가지의 처사가 주요한 이유가 되었을 것이고, 다음으로는 지나치게 원칙을 내세우면서 오는 어떤 결과에서 연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 研究室벽에는 ‘難得糊塗’라는 板橋 鄭燮의 橫額이 걸려 있다. 이 글귀가 어떤 원칙에 어긋나면 매정하게 척결하고 또 그럴 때마다 우물쭈물하지 않고 분명히 처리한다는 뜻이고 보면 내 소신을 두고 격려하는 것만 같다.

그러면서 나는 行政職 博物館長임을 자처한다. 아울러 멀지 않아 연세대학교 종합박물관이 신축 개관되면 내 소임을 마쳤으니 그만두어야 할 것 같다. 產婆는 保姆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